

자동차

Car



‘부산국제모터쇼’ 결산



미래의 차·신기술 ‘한눈에’

10개국 171개 기업 참가 ‘성황’ ‘뉴카렌스’ 등 25개 브랜드 출품

관람객 100만명·8억달러 수출 상담

카이런·렉서스 1만5천대 ‘리콜’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일 쌍용 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카이런 1만4천140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4월29일부터 지난 2월20일까지 생산된 차량으로 핸들 유압호스 연결부 형상이 불량해 핸들 조작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리콜 사유다. 차량 소유자는 쌍용차 직영 및 협력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결함을 수리받을 수 있다. 문의 080-500-5582.

이에 앞서 건교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3개 차종 1천37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해 해당 수입사에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8월31일에서 12월19일까지 생산된 ‘IS250’과 지난해 7월27일에서 12월26일까지 생산된 ‘GS300’, 지난해 7월27일에서 12월22일까지 생산된 ‘GS430’ 등이다. 문의 080-4300-4300.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차와 사람, 영원한 동반자’라는 주제로 열린 ‘2006 부산국제모터쇼’가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7일 막을 내렸다.

세계 10개국 171개 업체가 참가한 올해 부산모터쇼는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했고 8억달러가 넘는 수출상담 실적을 기록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모터쇼에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현대차 비자급 사태라는 악재를 뚫고 다양한 신차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또 국제모터쇼에서 미래 차량의 모델로 일컬어졌던 CUV(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의 인기도 여전했다.

◇참가규모=올해 부산모터쇼는 10개국 171개 업체가 참여했고 모터쇼 핵심인 완성차 부문에서는 7개국 25개 브랜드가 참여해 2003년 대회보다 규모 면에서 40% 이상 확대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아반떼HD 등 16종의 신차와 12종의 컨셉트카, 7종의 친환경자동차 및 개조차량이 출품돼 내용면에서도 한층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2회 연속 100만명 돌파=열흘 일정으로 열린 올해 부산모터쇼는 106만3천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면서 지난 대회 104만명에 이어 2회 연속 100만명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다.

확대된 참가규모와 한층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으며 특히 전시기간에 두차례나 포함된 사흘연휴는 전국단위 관람객 물이에 한 몫을 했다.

모터쇼 사무국측은 서울 등 수도권과 중부권, 영남권 등 부산 이외의 타지역 관광객이 전체 관람객의 4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신차 인기몰이=현대차는 지난 2000년 아반떼XD 출시 6년 만에 후속 모델인 아반떼HD를 선보였다. 새로운 외관과 신개발 감마 엔진이 장착된 신형 아반떼는 개발 기간 24개월, 소요 예산 1천238억원이 보여주듯 값진 땀과 노력의 결과로 탄생했다.

신형 아반떼는 기존의 아반떼와 달리 심플한 유선형 보디를 채택함으로써 세련미를 더했다. 크기도 기존 모델에 비해 차폭을 2인치 넓히고, 높이도 2.2인치 높임으로써 실내 공간을 넓혀 중형차 수준의 쾌적함을 느끼게 한다. 새로 개발된 1600cc 감마 엔진은 기존 알파 엔진에 비해 최대출력은 약 10%, 연비는 12% 개선됐다.

GM대우가 선보인 ‘G2X로드스터’는 2인승 스포츠카다. GM대우의 모회사

인 미국 GM이 유럽에서 생산·판매하기 위해 개발한 ‘GT’의 자매 모델이다. 신규 5단 자동변속기와 2400cc 엔진을 탑재해 진동이 적고 파워가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최고출력은 177마력이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이 7초대이다. 국내에서는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쌍용차가 부산모터쇼 전시와 동시에 판매에 들어간 액티언스포츠는 무쏘 스포츠의 후속 모델이다. 국내 최초의 스포츠유틸리티트럭(SUT)을 표방한 액티언스포츠는 5인승 승차 공간과 화물 적재용 대용량 데크 등을 갖춰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의 파워, 승용차의 세련된 스타일, 픽업(트럭) 차량의 용도성이 결합된 다용도 차량이다.

르노삼성차는 대형 세단 SM7에 위성·지상과 DMB 시청 기능 등을 갖춘 최고급형 모델 ‘프리미에르’를 모터쇼에 선보였다. 이 차량은 오는 8월까지 한정 판매될 계획이다. SM7 프리미엄에는 위성 및 지상과 DMB 시스템, 무선 통화 기능, 3차원 내비게이션 기능 등이 들어 있는 INS-700이 장착됐다.

◇미래 차량 CUV=세단과 SUV 등 각종 차량의 장점을 끌어모은 다목적 차량 CUV는 부산모터쇼에서도 큰 인기를 모았다.

기아차가 부산 모터쇼에서 첫선을 보인 ‘뉴카렌스’는 국산 자동차 가운데 CUV를 표방한 첫 모델이다. LP엔진을 탑재해 연비와 출력에 대폭 개선했으며, 기존 외관대 대폭 손질해 디자인 측면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현대차가 내놓은 컨셉트카(모토쇼를 목적으로 만든 미래 차량) 3대가 모두 CUV다. 중형 스포티웨건형 차량 제너스(HED-2), 쿼제(2인승용 스포츠차량)와 SUV의 특성을 결합한 타러스(HCD-9), 미니밴과 세단을 섞어놓은 듯한 네오스(NEOS)-III가 주인공들이다.

GM대우자동차가 소개한 T2X는 앞문과 뒷문 사이에 중앙 샤키가 없이 설계돼 뒷문을 열면 측면 전좌가 개방되는 첨단 디자인을 채택한 것이 특징으로 SUV와 쿼제형 스포츠카를 결합했다.

수입 CUV 중에서는 볼보자동차의 V50이 눈길을 끌었다. V50은 세단의 승차감을 지니면서도 최대 1307ℓ에 해당하는 물건을 실을 수 있는 SUV의 실용성을 지녀 주말의 레저활동에 제격이다.

푸조의 국내 공식 수입·판매원인 한빛모터스가 전시한 407SW는 중형 세단 407에 미니밴의 실용성을 더해 실내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택시시장 ‘한판승부’


쏘나타·그랜저 독주에 SM5·로체·토스카 도전장

택시시장을 둘러싼 자동차업체의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로체와 토스카가 출시되며 중형차시장에 4파전 구도가 형성된데 이어 이번에는 ‘자동차시장의 리트머스’라고 불리는 택시시장에서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업체는 울며 택시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택시의 경우 하루 종일 거리를 누비는 만큼 광고효과가 크고 택시기사들이 잠재적 고객인 승객들에게 차에 대한 전문가적 조언을 한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고객층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택시시장은 쏘나타와 그랜저를 앞세운 현대자동차가 5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확고한 강자로 군림했다.

하지만 SM5의 르노삼성자동차는 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고객층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택시시장은 쏘나타와 그랜저를 앞세운 현대자동차가 5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확고한 강자로 군림했다. 하지만 SM5의 르노삼성자동차는 울며 택시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택시의 경우 하루 종일 거리를 누비는 만큼 광고효과가 크고 택시기사들이 잠재적 고객인 승객들에게 차에 대한 전문가적 조언을 한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고객층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택시시장은 쏘나타와 그랜저를 앞세운 현대자동차가 5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확고한 강자로 군림했다.

차, 로체와 토스카 택시를 출시한 기아자동차와 GM대우자동차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며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우선 토스카의 질주가 눈에 띈다. 지난 3월 첫 택시모델이 출시된 토스카는 4월들어 총 664대가 판매됐다. 이는 4월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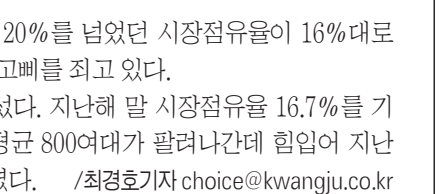


로체

제 택시 판매량 4천293대 가운데 15.5%에 달하는 수치로 3위 로체와는 불과 28대 차이이다. 대우자동차판매 관계자는 “토스카 홍보대사 300명을 선정해 무료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며 “현재 계약 미충족 차량이 750여대나 밀려 있어 계약 후 차량 인도까지 한달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로체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로체 택시는 울며 4월

까지 총 2천718대가 팔리며 신차효과 후 판매가 급감한 승용차와는 달리 인기몰이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기아차는 토스카 택시 출시로 20%를 넘었던 시장점유율이 16%대로 떨어지자 최근 할인폭을 넓혀야 고비를 뚫고 있다. SM5도 2위 자리 지키기에 나섰다. 지난해 말 시장점유율 16.7%를 기록했던 SM5 택시는 울며 월 평균 800여대가 팔리던간에 힘입어 지난 달 21.6%까지 시장점유율을 높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SM5

알 수 없는 나의 미래 운명을 바꾸고 희망을 주는 책!!

누가, 그 어린 소년에게 흥을 쓰야하고 망명을 확신했는가?
왜, 그의 운명을 갈가리 찢고 피눈물 나는 절망을 가져다주었는가?
한 남자의 땀속까지 시리게 밀려오는 감동적인 운명적 삶.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은 한 남자의 지독한 운명에 중독 될 것이다.



- 왜 해외에서까지 이 소설에 눈물을 흘리며 떠나간 조국의 땅을 찾아오는 것일까?**
- 이 소설을 10편이나 읽고 그 눈물의 비탄에 빠져 수년 뒤 광고비율을 잃브 지원한 — 일본의 모비
 - 7명이 사강한 출격사신의 현장에서 자차가 세겨준 숫자와 인장으로 생명을 권진 — 미국의 모비
 - 영민하일의 이름을 빼고 들고 이만들 갔다가 이 소설에 빠져진 편이 유행하며 눈물 흘린 — 영국의 1서
 - 지살 가족의 죽을 등 혁경을 받고 제기한 사인가, 소설을 읽고 한국에 무작을 결심한 — 호주의 5세
 - 중국인들도 발견 못한 탁월한 숫자의 운명학에 감명하며 흥운의 숫자를 부여받고자 달려온 — 중국의 9백



나와 맞는 숫자를 알면 富有 大吉運을 당신의 손에 거머쥌 수 있다.

전화번호·금융계좌번호·자동차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숫자들, 저자가 개발한 행운의 숫자를 만드는 법이 책 속에 수록되어 있다. 자신이 가진 고유숫자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조한다. 숫자만 잘 선택해도 행복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대담운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다.



한 남자의 기구한 운명을 눈물로 써 내려간 충격 실화 소설!

저자 정재원 1961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0가동 101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문리과 철학부 철학전공 석사학위 취득. 서울대학교 철학부 철학전공 석사학위 취득. 서울대학교 철학부 철학전공 석사학위 취득. 서울대학교 철학부 철학전공 석사학위 취득.

신정중앙연구원
T. 02)765-4724 ~ 5 / F. 02)765-4728
http://www.sjung.com / 연구비: 10만원 / 상담료: 5만원
예약 전화 051-817-1600 / 011-888-5767
성경·행운·수액·부족·인수후